정부, 지방건설경기 부양 외면

주택법 개정 불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미뤄

수도권 집값 안정…광주·부산 등은 미분양만 쌓여

각종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는 등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정부의 지방 부동산 부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주택법 개정을 전후로 수도권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가운데 광주와 부산 등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616가구로, 이 가운데 94%인 7만1천72가구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에 집중돼 있다.

반면 수도권은 4천544가구로 같은 기간 3.8%(180가구)가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 광주·전남은 올들어 주택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1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만2천379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1만1천21가구)보다 12%(1천358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과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분양시장이 크게 침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1월 미분양이 7천5가구로 늘어나면서 전달(6천506가구)보다 7.7%(499가구) 증가했으며, 전남지역도 한 달새 19%(859가구)나 늘어난 5천374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다.

이같은 상황은 타 지방 시·도의 경우도 비슷하다. 대구와 부산의 미분양 물량이 1월 현재 각각 9천467가구, 8천680가구에 달하는 등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법 개정 여파가 오히려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부산시 등 각 지자체와 건설업계 등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주택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미뤄온 만큼 광주, 부산 등 지방 도시에 대한 실사를 통해 규제 완화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호남 광주·전남회장은 "올들어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마저 주택 구입에 나서지 않을 정도로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등 지방 부동산시장 부양책 마련이 지연될 경우 향후 지방 주택업체들의 무더기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생식품 전문매장인 '한두레'가 3일 광주시 용봉동에 문을 연 가운데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한두레는 '한두레 과채'라는 자체 브랜드로 지역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농수축산물 전문 판매

생식품 매장 '한두레' 문 열었다

광주 북구 용봉동 150평 규모…신선식품으로 승부

광주에 지역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생식품 전문매장이 문을 열었다.

(주)신선유통은 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에 생식품 전문매장인 '한두레'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한두레는 매장면적 150평 규모로, 동네 슈퍼마켓과 초대형 슈퍼마켓인 SSM(Super Super Market)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특징.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상품 구성비율이 공산품 60%에 생식품 40%인데 반해 한두레는 생식품 60%에 공산품 40%로 신선한 1차 식품에 승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한두레 과채'라는 상표로 의장등록을 마치고 광주원협과의 공동구매를 통해 전체 농산물의 80%가량을 광주·전남지역에서 구매하고 있다.

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주는 '환불보장제'와 '200배 보상제' 등을 도입해 생식품 만큼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이 한두레측의 설명이다.

한두레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나 영업 1년만에 화재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재개점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틈새전략을 통해 1년동안 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두레 이행수 대표(38)는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마저 분리매각된 상황에서 전국단위 대형 유통업체와 맞설수 있는 방법은 생식품 전문매장 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동네 슈퍼마켓들로부터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익사업으로 수용 당한 땅 주택용지로 최대 100평 보상

代土보상제 도입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대신 주택용지로 보상받고자 할 경우 최대 100평까지 허용된다.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뒤 남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토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교통부는 4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6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개발에 따라 조성된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대토보상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현지주민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토보상 상한은 주택용지는 100평(330㎡), 상업용지는 333평(1천100㎡)이며 대토로 보상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남은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해주도록 했으며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 증설

2009년까지 1,260억 투자

금호미쓰이화학(사장·김완재)은 일본 합작회사인 미쓰이화학과 지난 3월말 합의를 통해 2009년까지 1260억원을 투자, 여수국가산업단지내 MDI(Methylene Diphenyl Diissocyanate)공장을 증설한다고 3일 밝혔다.

MDI는 자동차 내장재·냉장고 단열재·건축자재, 고급섬유인 스판텍스, 신발창과 LNG선의 보냉재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며, 향후 지속적인 시장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첨단화학제품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2008년 상반기 중 공장 증설을 위한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고 2008년 8월 착공해 2009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7만t의 MDI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미쓰이화학은 이번 공사가 끝나면 현 생산규모의 두배인 MDI 14만t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1989년 3월,금호석유화학과 일본의 미쓰이화학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인 MDI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토공 광주·전남본부, 땅 3만 6천평 팝니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한 땅값 안정을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토지를 매각한다.

3일 토공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내 토공 소유 총 10필지(3만6천평)의 토지를 오는 6월30일까지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 토지중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일반상업용지 4필지(1천377평), 서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2필지(759평) 등은 광주시내 요지로 평가돼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또 목포 용당동 상업용지를 비롯,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 내 토지 등도 우량토지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062-360-3221~2.

/최경호기자 choice@

농협 이달의 사촌상 시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이달의 사촌(社村)상' 수상대상에 현대증권(대표이사 김지원)과 영암군 망호정마을(대표 이경호)을 선정, 2일 시상했다. 〈사진〉

'이달의 사촌상'은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자매결연체간 내실있는 교류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농협이 제정했다.

수상대상에는 각 50만원씩의 격려금이 주어지고 수상마을에는 편의시설 지원 등 평가과정에서 가점혜택이 부여된다.

현대증권과 망호정마을은 2005년 8월 결연한 뒤 지난해 4월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망호정마을을 찾아 볍씨 종자를 뿌리는 농사체험을 실시했다. 현대증권은 또 매월 친환경쌀 70포씩을 구매하는 등 연간 136회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3억8천200만원의 판매대금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망호정마을은 부채만들기, 논에 왕우렁이 넣기 등 다양한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현대증권에 제공해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서광주세무서 팩스민원 발급 연장

서광주세무서(서장 김주현)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365-4650)'의 팩스민원 발급신청을 휴일 및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팩스민원증명대상은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민원서류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주현 세무서장은 "퇴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접수된 팩스민원을 1일 1인 20분전 출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